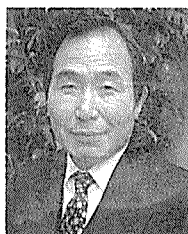


기성세대여, 정보화 의식으로 재무장하라

미국에서는 금문교가 건설되고 일본에서는 기차가 다니기 시작하던 때에 있었던 일이라고 한다. 우리나라 조정에서 두 명의 관리가 근대화(공업화)되고 있는 일본의 물정을 보고 귀국하여 왕 앞에서 출장복명을 하게 되었다. “일본에서는 시커먼 쇠덩어리가 수백명 이상의 사람을 태우고 말보다 빨리 달리고 있는 것을 보았는데 그것을 기차라고 하옵니다”라고 김참판이 보고를 하였다. 이에 놀란 왕은 “그럴수가 있는가? 어떻게 그 무거운 쇠덩어리가 스스로 달릴 수 있으며 그것도 수백명씩이나 되는 사람을 태우고 말보다 빨리 달릴 수가 있단 말인가?”라고 김참판의 말을 믿으려 하지 않았다. 답답해진 김참판은 “전하! 황공하옵시다만 사실이옵니다! 통촉하시옵소서!”라고 계속 주장했다.

이 과정을 지켜보던 어전회의 참석 대신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다. 드디어 영의정이 나섰다. “전하께서 아니라면 아닌 것이지 불충하게도 고집스럽게 우기는가? 세상에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그렇지 어떻게 쇠몽치가 스스로 움직인단 말인가?”라고 질타를 하고 이어서 “상감마마! 김참판은 지금 허무맹랑한 말을 하여 어의를 어지럽히고 있습니다. 이는 불충스럽게 그지없는 일로서 김참판을 당장 내치셔야 합니다. 통촉하시옵소서!”라는 영의정의 주장에 모든 신하들이 “상감마마! 그리하셔야 합니다! 부디 통촉하시옵소서!”라고 들고 일



盧仲鎬

(주)CHNO시스템컨설팅 대표이사

어나 왕은 그리 했다고 한다.

일반적으로 인간은 자기가 살아온 문화적 공간과 환경에서 형성된 관념의 세계를 갖고 있으며 이들 세계의 틀레를 의식 구조의 벽이라고도 하고 시각범위라고도 한다. 농경사회에서 형성된 시각으로는 공업화를 제대로 볼 수가 없는 것이고 공업화사회에서 형성된 시각으로 정보화를 제대로 볼 수가 없는 것이다.

지금 우리사회의 정보화 문맹, 컴퓨터 문맹률이 어떠한가. 특히 각 분야의 조직에서 의사결정권을 행사하고 있는 기성세대들의 컴퓨터 문맹률은 99%에 육박한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이 문맹이 퇴치되지 않고서는 정보화사회는 건설될 수 없는 것이고 기업·군대·행정조직 등 모든 면에서 정보화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우리민족은 또다시 빈곤의 굴레속으로 빠져들게 될 것이다.

컴퓨터 문맹을 퇴치하는 첩경은 공업화적 문화 환경에서 형성된 視覺을 교정하는 것이다. 즉, 정보화 의식으로 재무장하는 일이다.